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원일



박지성이라는 축구선수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팬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 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도 무명시절의 설움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0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한국의 프로축구단체인 K-리그를 외면하고 당시 일본의 J-리그 중위권이던 교토 퍼플 상가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활약하던 일본행을 선택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 박지성은 결국 세계적인 히딩크 한일월드컵감독의 눈에 띄어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되기에 이른다.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안목을 가진 히딩크라는 푸른 눈의 스승의 '눈'과 '믿음'에 보답하고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월드컵 4강 신화의 역사를 썼고 스승의 탐인 인터넷 호베를 거쳐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간판선수로 성장한 것이다. 이런 박지성선수를 두고 최근 CNN이

보도한 내용이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박지성이 무명시절 자취리그인 K-리그에서 외면당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 그의 진가를 알아본 세계인들에 의해 오해게모니 권력다툼과 후진적 기 싸움의 작태를 한국대표팀운영의 현주소로 오버랩시켜 보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현재 2010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캐나다 밴쿠버에서 올림픽 기념행사로 추진되는 밴쿠버 비엔날레의 커미셔너 회의에 참석중이다. 내년 2월 개막되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우리의 피겨스케이팅의 국민요정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을 하게 되는 행사여서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될 이곳 밴쿠버 올림픽에 맞추어 밴쿠버 시가지와 공공버스, 아름다운 해변에서 펼쳐질 비엔날레 행사에 필자의 능력이 다하는 대로 광주작가를 세계무대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히딩크와 같은 명장도 못되고 박지성 선수를 운운할 자격을 갖춘 유명인사도 아니다. 그저 한국출신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 예술가의 위상을 높이고 그들을 서구작가와 동등한 신분과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버겁게 삶을 연소시키고 있는 작은 기획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계무대

박지성과 광주 예술가

날날 최고의 스타선수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비아냥 어린 보도가 그것이었다. 대한 축구협회라는 단체와 K-리그라는 한국프로축구의 지도자들의 수준이 그의 잠재력과 능력을 식별할 '눈'과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보도였다. 그리고 얼마 전 박지성 선수 자신도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최근의 대표팀운영과 선수발탁을 둘러싼 축구협회와 K-리그간의 불협화음과 짧은 안목을 개탄하고 나선 바 있다. 아마도 CNN이 이러한 한국의 일련의 이전투구식의 스포츠 정치의

라는 냉혹한 정글 속의 이 힘겹고 버거운 도전의 여정에 늘 광주작가들을 중심에 배치시키고자 노력할 뿐이다. 밴쿠버에서 시민들의 올림픽 행사준비 상황을 목도하며 2015년 개최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준비를 떠올려 본다. 광주는 밴쿠버시와는 또 다른 아름다운 풍광과 예술적 전통을 갖춘 도시다. 광주 시민 아닌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또한, 밴쿠버 시민들이 올림픽행사를 기념하는 예술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듯이 광주 시민들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맞추어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위상에 걸맞은 예술행사를 준비하여 행사의 격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광주시와 시민들이 스포츠 선수의 발굴과 육성 못지 않게 예술가지원 육성에도 예산을 할애하여, 무명시절의 박지성과 같은 광주기획자나 광주예술가의 능력과 잠재력을 식별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시각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적, 예술적 구조를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히딩크 호베를 아닌 '히딩크의 눈' 말이다. <스위스 BSI재단 상임 큐레이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쌀값 이은 한우값 폭락 방지대책 세워라

최근 한우사육 두수가 급증하면서 소값 폭락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지역 한우사육 두수는 9월 말 현재 42만7천마리로 지난해 대비 9.4%가 증가했다. 소 사육두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는 264만 마리로 적정 규모인 24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처럼 한우사육 두수가 급증한 것은 산지 소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산지 소값은 9월 현재 700kg 기준 수소 경매가격이 지난해보다 30% 가량 상승한 700만 원대를 유지하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우사육농가들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시장개방에다 사료값 폭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직거래판매편 확대 등 자구노력과 안전한 먹을 거리를 찾는 소비심리와 맞물려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내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가격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송아지를 입식해 2011년경 출하할 경우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우사육은 농촌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수확기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농촌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한우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제부터 한우값 하락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한우 가격이 폭락한 뒤에는 백악이 무효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해 과잉 공급을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축산당국은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소값 폭등·폭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사료비 감감 등을 통한 한우사육기반 유지의 위기의 농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다.

'나랏돈 도둑질' 국가존립 차원에서 다뤄야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이 '눈بن 돈'이 되고 있다.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검찰이 밝혀낸 국고횡령이나 보조금 부당 수령사건의 총피해액이 무려 1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무원, 대학교수, 군인, 승려, 시민활동가, 농·어민 등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나랏돈을 사사로이 챙겼다. 나랏돈 도둑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랏돈 도둑들의 도덕적 타락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해야 하는 책임은 해당기관과 제도상의 과제다. 더욱이 나랏돈을 취급하는 업무라면 정부가 나서 2중, 3중의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정부의 이익을 빼돌린 공무원 등 150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비리사태들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이나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먹일 쌀까지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빼돌려진 것이다. 장애인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빼돌려 아파트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공무원도 있었

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백주대낮에 창고에서 쌀 수천 가마를 '차떼기' 수법으로 트럭에 싣고 출근 군인과 양곡 도매업자도 적발됐다.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나랏돈 도둑들의 도덕적 타락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해야 하는 책임은 해당기관과 제도상의 과제다. 더욱이 나랏돈을 취급하는 업무라면 정부가 나서 2중, 3중의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정부의 이익을 빼돌린 공무원 등 150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비리사태들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이나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먹일 쌀까지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빼돌려진 것이다. 장애인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빼돌려 아파트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공무원도 있었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박성찬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송철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리적인 부분에서야 이미 정답이 나온 상태이지만(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믿고 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내외의 압력을 이겨 내고 소신 있게 그러한 결정을 믿고 나갈 수 있을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될 것 같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재투표, 대리투표 등 절차적 하자의 중립적 접근이라 할 미디어법의 통과 과정을 생각

라고 모두 다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쓰디쓴 가르침을 얻었다. 현실은 또 어떤가. 이제는 제법 민주주의의 기틀이 쌓인 인권선진국이 되었다는 우리들의 자부심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불과 1, 2년 만에 우리나라는 기무사가 다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음이 들끓는 데도 조용히 넘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쫓아내기 위하여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그렇게 대놓고 흔들어 대놓고도 현직 대통령은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미디어법 논란을 보며

해 볼 때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결과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어이없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역시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에 대해서 내리진 권한쟁의 생각해보자. 들 어본 적도 없는 관습헌법이라는 희한한 법 논리를 끌어와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문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기억할 하시는지? 스스로를 헌법재판자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헌법재판소의 이 대단한 용기(?)를 뉴스에서 전해 들었을 때 참 감동은 분노가 아니라 어처구니없음이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당시 다수의견으로 이 논리를 채택하여 행정수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심지어 이를 지지하는 명망있는 헌법학자들까지 등장하였던 기억이 필자에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려하게 만드는 한 이유이다. 여담이지만 당시 필자는 법조계의 원로라 할 분들이 모두 존경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과 공부 많이 한 학자의 견해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한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를 최고 정치지도자만의 뜻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 사회의 파워엘리트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의 상황을 응원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들은 얼마든지 허수아비 같은 자를 앞으로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뜻대로 이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디어법은 그 핵심과리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두려운 것이다.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만은 그래도 정의의 편에 서서 이 일련의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니라 희망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될까 무섭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까.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준엄한 법 논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최소한의 법치기 가능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 말이다. <변호사>

국도에 버려진 쓰레기 여행객 즐거움 빼앗아

몇몇 천 아이들을 데리고 목포와 순천쪽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국도를 따라 운전중이었는데 도로가에서 풍기는 인분과 각종 버려진 음식 찌꺼기 때문에 적잖이 곤혹을 치렀고 여행의 기쁨을 반감시켰다. 시골의 들과 산에서 전해주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차창을 열고 운전을 한전데 이런 위치가 나니 기분이 안좋았다. 국도를 달리던중 아이가 사진을 찍는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하길래 잠깐 멈췄는데 카

메라를 들고 나간 아이가 코를 막고 돌아왔다. 누군가 오바이트 해놓은 것과 대변을 본 것이 싸고 있는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전남은 경관이 수려해서 주변 모두가 관광자이고 우리가 아껴야 할 소중한 산과 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코트레를 부르며 즐겨야 하는 여행길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은 수많은 여행객들을 피로에서 해방시키는게 아니라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다. ▲이성열·나주시 산정동

기고

박민수



최근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과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젊은층의 영농기피와 산업화로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전략과제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단순한 식량 자급자족의 시대를 지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고 쾌적한 농촌의 경관이 국민들의 정주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 새로운 개념의 민간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 '깨끗한 농촌만들기'이다. 농업인 스스로 농촌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폐농자재 처리 등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 농업·농촌의 관광자원화로서 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농업인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농업·농촌의 녹색성장 비전 확

푸른농촌에서 희망을 찾읍시다

농업·농촌을 활용해 농가소득과 연계하면서 국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 만들기이며,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 운동이다. 이런 점에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농업인 스스로 생명, 환경, 전통문화 등 농촌 고유자원의 가치 창출과 의식 선진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민간 농업단체 중심의 자율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의 농업·농촌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共生)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동체적 자립과 상호협력의 상생(相生)과 자생(自生)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이러한 자연환경과 문화가 중요시 되는 변화의 시대에 농업인 스스로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라는 자립심과 경쟁력을 높여나

산을 위한 농업인단체와 마을 중심의 자율적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 운동과 연계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귀촌과 전원 생활을 하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원생활과 지역농업에 따른 맞춤형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녹색생활 도움본부'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설치 운영하여 귀농인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도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자. 그리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재배하는 농업에서 보고 즐기는 농업, 건강을 유지하는 농업과 웰빙생활을 할 수 있는 농업, 첨단기술과 정보가 접목된 신소재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농촌에 돌아와 살수 있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농업인 정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철수 중반을 넘기신 부모님이 평생 농사만 지어오셨는데 별 때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떠오른다. 그것은 정년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67세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년이 고작 60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산정해 보험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 가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요즘 농촌에서 60세는 청년 층에 들어간다. 농촌 마을의 평균 연령이 이미 70세 가까이 되고, 60세 어른은 노인 층에도

못드는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지역개발 뿐 아니라 농기계사고 등 각종 사고가 많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료를 지불하고서도 정년기준 차이로 혜택을 덜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말로만 농업이 중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복지분야의 혜택은 적고 형평성에도 안맞는다. 농업인들의 정년기준이 낮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 뿐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마땅하다. ▲정경안·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無等鼓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다. 2007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는 대면(對面) 상봉은 이번이 17번째다. 광주·전남에서도 네 가족이 29일부터 북에 상봉하고 있는 가족과 만나게 된다. 이들은 밤잠을 설치며 상봉 순간만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다. 혈육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60년 가까이 묻고 살아왔던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은 분단된 갈토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하지만 만남의 순간은 짧은 응어리를 풀기에는 너무 짧다. 남북한 정부가 추진해 온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9월에 이뤄진 고향 방문단 교환사업이 처음이다. 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지 15년 만이었다. 그 이후로도 15년간은 큰 진전이 없었다. 이산가족 교류가 제도화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언'이 계기가 됐다. 덕분에 2000년 8월부터 2007년 10월

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남북에서 모두 1만6천212명이 대면 상봉을 했다. 2005년부터 이뤄진 7차례의 화상 상봉에 이번 상봉 가족까지 합치면 2만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죽기 전에 자신들의 차례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수는 12만7천 547명이며 이중 4만7천 195명이 이미 사망했다. 생존자 중에는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75%가 된다. 이 때문에 이산가족들은 상봉 숫자를 늘려주거나 좀 더 자주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에타게 바라고 있다. 상봉을 일회성 이벤트로 삼을 게 아니라 정례화하고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은 민족 모두의 아픔인 만큼 이제는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이산가족 상봉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